

연세국학총서 103

이 책은 2006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토대연구) 사업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6-322-A00019).

식민지시기

#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김도형 외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삶과 기억

초판 1쇄 발행 2009년 6월 30일

저 자 | 김도형 외

발행인 | 윤관백

펴낸곳 |  신인

제 작 | 김지학

편 집 | 이경남 · 장인자 · 김민희

표 지 | 정안태

교정교열 | 김은혜 · 이수정

영 업 | 이주하

등록 | 제5-77호(1998.11.4)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24-1 꽃마루 B/D 1층

전화 | 02)718-6252 / 6257 팩스 | 02)718-6253

E-mail | sunin72@chol.com

Homepage | www.suninbook.com

정가 24,000원

ISBN 978-89-5933-014-0(set)

978-89-5933-181-9 94900

·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대한민국학술원기증 104700

#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과거와

## 현재적 의미\*

-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중심으로 -

길 태 숙

### 1. 항일투쟁노래와 <신흥무관학교 교가>

한국에서의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sup>1)</sup> 문학에 대한 연구는 만선일보 등의 신문에 실린 시,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하거나<sup>2)</sup>

\* 본 글은 『동방학지』 144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에 수록한 논문을 부분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임.

1) '재만'이라고 명칭한 것은 조선인이 항일혁명노래를 창작하고 향유했던 당시 조선인이 주로 거주했던 중국 지역이 만주국이었기 때문이다.

2) 오양호, 「현대문학: 1940년대 초기 만주이민문학연구-『만주시인집』, 『만선일보』 문예란 소재 작품연구 서설,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1995; 오양호, 「〈滿鮮日報〉 文藝欄 研究, 『日帝強占期滿洲朝鮮人文學研究』, 文藝出版社, 1996; 김재용 외,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연락, 2004; 김화선, 『『만선일보』에 수록된 일제말 아동문학연구, 『비평문학』 19, 한국비평문학회, 2004; 정덕준·김정훈,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인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윤윤진, 「〈만선일보〉 문학비평 개관」, 『재중조선인 문학연구』, 신성출판사, 2006; 오양호, 『만주이민문학연구』, 文藝出版社, 2007.

아니면 1954년 중국인민공화국의 '민족정책' 아래 길림 연변지구, 흑룡강 지구, 요녕 지구를 중심으로 수집 채록된 구비문학을 대상으로 한 것<sup>3)</sup>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본 글에서 주목하고자 한 대상은 재만조선인의 항일투쟁 노래와 항일투쟁노래의 하나인 〈신흥무관학교 교가〉이다. 그동안 재만조선인의 항일투쟁노래는 연구자들의 관심의 망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지만<sup>4)</sup> 일제강점기를 통해 본토를 떠난 한인들의 삶과 욕망을 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다.

2006~2007년 1년 동안 한국 연세대 국학연구원 재만조선인 구술사 연구팀은 일제 식민지시기 재만조선인의 일상에 주목하여 재만조선인의 당시 경험과 기억에 대해 구술 조사하였다.<sup>5)</sup> 연구팀이 항일투쟁기 당시의 만주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70~8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제시대에 정치적·경제적 이유로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의 자녀들이었다. 이들은 만주에서 출생하였거나 아니면 조선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만주로 이주하였으며, 출생지와 상관없이 대부분 조선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였다. 연구팀은 구술채록 과정에서 박씨 할머니<sup>6)</sup>로부터 다음

3) 최인학, 『중국조선족 설화의 연구』, 『비교민속학』 4, 비교민속학회, 1989; 임동권, 『연변 한족의 민요연구』, 『한국민속학』 24, 한국민속학회, 1991; 김신봉, 『재중한족의 설화연구』, 『한국민속학』 24, 한국민속학회, 1991; 소재영, 『설화의 양상과 특질』,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2; 김동훈, 『구비문학개관』, 『연변지역 조선족 문학연구』,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2.

4) 황선열, 『일제시대 독립운동사가연구』, 한국문화사, 2005(황선열의 이 책은 재만조선인의 항일투쟁노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남한과 북한의 항일투쟁노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5) 2006~2007 연세대 국학연구원 채록 『재만조선인 구술자료집』은 곧 발간될 예정이다.

6) 이승낙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과 같은 항일투쟁과 관련된 노래를 채록할 수 있었다.

서북으로 흑룡태원 남의 영절에  
여러 만만 현원 자식 업어기르고  
동해 섬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고  
젓 먹여 주시네  
우리 우리 배달 나라에  
우리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던 피가 우리 핏줄에  
활활찰 넘치며 도누나

장백산밑 비단 같은 만리 낙원은  
반만년 미치도록 지키신 옛집이어늘  
오늘와서 남의 자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중서름 받는데 뉘요  
우리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우리 소년들이라(울음이 터지시는 듯 울컥 하시고)  
그네 가슴 끓던 피가 우리 핏줄에  
활활찰 넘치며 도누나

칼춤 추고 말을 달려 몸을 연마코  
새론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쓰러져간 우리 민족 이끌어 내어  
세나라 세을 이 뉘노  
우리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  
손벽쳐서(직접 손벽을 치시며) 두 팔 들어 만세 불러라

7) ( ) 부분은 채록자가 보고 느낀 것을 밝힌 내용이다.

자유의 깃발이 떴다.

이 노래가 바로 <신흥무관학교 교가>이며, 일종의 항일투쟁노래라고 할 수 있다. 항일투쟁노래는 19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05에서 1910년 사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일제 식민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불린 노래이다. 남한에서는 보통 '독립군가'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항일혁명가요'라고 하며 만주 지역에서는 '항일연군가'라고 한다.<sup>8)</sup> '항일투쟁노래'<sup>9)</sup>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비판하고 조국과 계급의 독립과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음악적으로는 근대적 음악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양음악 특히 일본의 창가, 동요, 군가 등의 음악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

연변에서 출판된 노래집인 『항일투쟁시기노래집』<sup>10)</sup> 『조선족민요곡집』<sup>11)</sup>에는 제만조선인의 항일투쟁노래가 실려 있다. 『항일투쟁시기노래집』은 1957년 연변대학교 사회과학계에서 출판한 책으로 노래의 가사만 전한다. 책의 앞부분에는 이 책이 항일투쟁에 참가한 한 개인인 '김선'<sup>12)</sup>의 수첩에서 원문 그대로 등사한 필사본이라

8) 민경찬, 「항일혁명가에 침투한 일본노래」, 『역사비평』 41, 역사문제연구소, 1997, 131쪽.

9) '독립군가'는 독립의 의미에 치우쳐 있으며, 반대로 '항일혁명가요'는 혁명의 의미가 강하고, '항일연군가'는 그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들 노래는 항일투쟁시기 조국의 독립과 계급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항일투쟁노래'라고 명명하였다.

10) 연변대학교 사회과학계, 『항일투쟁시기노래집』, 1957.

11)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조선족민요곡집』, 1982.

12) 김선은 조선족 여 항일투사로서 1932년에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였다 한다(최삼룡, 「항일가요의 수집과 출판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해방전 중국조선민족문학 연구: 제2회 중국조선민족문학 국제 학술회의 자료집』, 한국 연세대학교 BX21,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문학 연구소, 2007).

고 밝히고 있다. 『조선족민요곡집』은 연변문학예술연구소에서 1982년 출판한 필사본으로 가사와 곡조 모두 실려 있다. 노동가요, 서정가요, 서사가요, 종교의식가요라는 이름 아래 민요가, 아동가요라는 이름 아래 동요가, 혁명역사가요라는 이름 아래 혁명투쟁노래가 실려 있는데, 조선어와 중국어로 기록되어 있다.

항일투쟁노래는 서양음악을 바탕으로 불리었다. 특히 일본식으로 재구성된 서양음악의 곡조를 바탕으로 한 노래가 많다. 당시 우리 작곡가가 만든 음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는 점, 이미 일본 노래가 많이 유입이 되어 무의식적으로 따라 부르면서 친숙해졌다는 점, 일본 음악인지 몰랐다는 점 등의 이유에서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sup>13)</sup> 서양음악은 선교사들에 의해 전달된 찬송가와 학교 교육을 통해 수용되었는데, 서양의 노래보다는 일본 창가풍의 노래에 한국어 가사를 붙이기가 용이하였고, 서양 음악 자체를 수용하는 것보다 서양음악이 일본식으로 재구성된 것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 당시로서는 더 쉬었을 것<sup>14)</sup>이기 때문이다.

분명 항일투쟁노래는 그 음악적 형식과 주제에 있어 서로 모순된 면을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적으로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모두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노래의 주요 향유층이 조국을 잃고 타국에서 조국과 민족, 계급을 위해 애쓰던 사람들로, 노래에는 이들의 사상과 감정, 삶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일제하 만주 지역에서 불린 <신흥무관학교 교가>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

13) 민경찬, 앞의 글, 129-138쪽.

14)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음악 100년』, 현암사, 2001, 114-115쪽.

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항일투쟁시기노래집』, 『조선족민요곡집』에 실려 있는 항일투쟁노래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와 더불어 〈신홍무관학교 교가〉의 당대적 의미와 기능을 추론할 것이다. 또한 이 노래를 기술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이 노래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sup>15)</sup>

## 2.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주제와 그 특징

### 1) 항일투쟁노래의 내용별 분류

연변에서 출판된 『항일투쟁시기노래집』과 『조선족민요곡집』에 실려 있는 항일투쟁노래에는 일제의 강압적 통치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애환과 투쟁의지가 담겨있다. 특히 일본제국주주의 식민지배에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을 갈망하는 노래, 소작인 혹은 무산자로서의 자신의 계급적 신분을 인식하고 지주 및 부르주아에 맞서 계급적 해방을 이루자는 노래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만주에서의 조선인의 항일투쟁은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우선하자는 촉과 계급의 해방을 우선하자는 촉의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방향의 조국독립과 계급투쟁의 의지는 두 노래집에 실려 있는 항일투쟁노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든 고향과 조국을 떠나야만 하는 이별의 노래와 타향살이의 슬픔을 다룬 노래,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의 향유자들 대부분이 고향과 조국을 떠나 만주에서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향과 가족 혹은 사랑하는 사람

15) 재만조선인의 항일투쟁노래의 의미에 주목한 연구이기 때문에 항일투쟁 노래의 내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들에 대한 향수가 남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노래집에 실린 항일투쟁노래는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노래’, ‘계급투쟁과 관련된 노래’,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sup>16)</sup>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서정적 주체에 따라 여성, 남성, 아동의 노래<sup>17)</sup>로 나뉠 수 있다.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노래〉

	항일투쟁시기노래집	조선족민요곡집
남성	三月一日歌, 反日歌, 간도도벌가, 勇進歌, 충동원가, 抗日祖國光復會十大綱領歌, (망명자의 노래), 구일팔기념가, 國恥紀念歌, 일로군가, 혁명가(27쪽), (혁명가(40쪽)), 민족해방가(43쪽), 八一反戰歌, 인민혁명군가, 민족해방가(72쪽), 이천만가, 반일전투가, (반일가), (연길감옥가), 루대주가, 조선독립군가 (己未운동시), 벽파정, 유격대가, 민족해방가 (148쪽), 만주혁명가, 민족해방가(153쪽), 혁명가(156쪽), 반일진가, 자위단, 통일전선가	용진가, 9·18사변가, (반일가), 반일진가(771쪽), 혁명가(773쪽), 혁명가(777쪽), 반일진가(786쪽), 유격대행진곡, 민족해방가, 송화강변, (연길감옥가), (자유의가), 진기가, (강철대오만들자), 진군가, 군도를 높이들고
여성		
아동		어린이 혁명가

16) 노래에 따라서는 조국의 독립과 관련된 노래인지 혁명의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인지 구별이 힘든 노래도 있다. 이는 계급 혁명을 통해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당시 재만조선인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계급 해방보다는 조국의 독립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국의 독립과 관련된 노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래들은 ( )로 표시하였다.

17) 남성, 여성, 아동의 분류는 노래 제목 자체에 성의 구분이 나타나 있으며, 노래의 내용에서도 서정적 주체가 뚜렷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노래들은 아동, 여성의 문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를 통해 항일투쟁노래 중 여성과 아동의 노래의 내용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본 글은 여성과 아동의 항일투쟁 노래의 특징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루지는 않는다.

## 〈계급투쟁과 관련된 노래〉

	항일투쟁시기노래집	조선족민요곡집
남성	빨치산추도가, 메이데가, 赤旗歌, 쓰련응호가, 유희곡(28곡), 오월행진곡, 결사전가, 혁명가(농민가), 혁명가(36곡), 로동자, 혁명곡(39곡), 한양감옥가, 메이데이가, 향춘발추도가, 레닌탄생가, 공청가, 現代社會子看歌, 혁명가(52곡), 빈농민자탐가, 맑스레닌추억, 무도곡, 혁명곡(64곡), 귀민투쟁가, 혁명가(68곡), 결사전가, 동북인민혁명군가, 혁명가(86곡), 혁명곡(88곡), 혁명가(93곡), 의회주권의 노래, 진격대가, 농부가, 혁명가(105곡), 불평곡, 국제가, 민생단반대가, 파쟁반대가, 추도가, 혁명가(155곡), 혁명곡(159곡), 제3기몰락, 농민자탐가, 나의가정, 심진가(171곡), 심진가(173곡), 장치운동가	적기가, 메데가, 일어나라 만국의노동자, 의회주권가, 붉은봄, 총동원가, 동북인민혁명군가, 무용곡, 혁명군가, 철서가, 나가짜우자, 결사전가, 혁명군의 노래, 혁명가(799곡), 불평등가, 농민혁명가, 추도가, 사회모순가, 최후의 결전, 전위가
여성	女子解放歌(54곡), 부녀해방가, 女子解放歌(148곡)	녀자해방가(796곡), 녀자해방가(797곡)
이동	소년군가, 국제아동가, 자유가, 아동가, 어린이 노래, 삐오네르, 아동가, 가정가, 어린이목격가	삐오네르, 어린이노래, 소년단노래

##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

	항일투쟁시기노래집	조선족민요곡집
남성	결혼가, 인산곡, 고향리별곡, 락화류수, 망향가, 고향리별가, 고향의 설음, 군인리별가, 실연의 노래, 리별가, 사랑곡, 망향곡, 感秋歌, 방랑의 노래, 망향가, 아리랑, 유희곡(192곡), 사랑의 축복	팔로군으로
여성	리혼가	
이동	고아의 서름, 고아의 노래, 갈매기, 투랑의 마차, 인니동생별, 별의 작란, 엄마없는새, 바다가으로, 꿈꾸는 별, 어머니 생각	

『항일투쟁시기노래집』에는 이외 당시의 대중가요인 윤심덕의 〈사의찬미〉가 실려 있고, 〈은하수〉, 〈고기잡이〉, 〈끄레멘트〉, 〈봄노래〉, 〈설날〉, 〈첫꿈〉 등의 동요가 책의 말미에 실려있다.<sup>18)</sup>

『항일투쟁시기노래집』에는 시기적으로 일제침략기의 노래가 집중적으로 실려 있는 반면, 『조선족민요곡집』에 ‘혁명역사가요’라는 이름 아래 실려 있는 노래 중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했을 당시에 불린 노래가 아닌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sup>19)</sup> 그 내용으로 보아 해방 후에 불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타도의 대상이었던 일본 제국주의가 사라지고 공산당이 집권한 후의 노래로 새로운 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는 노래가 주를 이룬다. 〈동북건설가〉, 〈생산가〉, 〈섬멸의노래〉, 〈붉은피를흘렸네〉, 〈승리의기발〉, 〈근거지 건설 노래〉 등 그 제목만 보아도 공산당 집권 이후 노래의 주요 주제에서는 독립과 민족에 대한 것은 사라지고 공산당 혁명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항일투쟁노래의 의미와 특징

남한이나 북한에 전해지고 있는 항일투쟁노래와 마찬가지로 만주에서 불리던 조국독립과 계급투쟁의 의지를 드러낸 항일투쟁노래

18) 윤심덕의 〈사의찬미〉, 동요 〈은하수〉, 〈고기잡이〉, 〈끄레멘트〉, 〈봄노래〉, 〈설날〉, 〈첫꿈〉 등은 항일투쟁기에 불린 노래이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 항일투쟁노래의 범주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항일투쟁노래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 섬멸의노래, 붉은피를흘렸네, 승리의기발, 박격포의 노래, 민주련군행진곡, 동북보안군, 길동군가, 길동혁명가, 일어나라동북의남아야, 우리패장동무, 소나기운다, 공신의노래, 새어랑타령, 민주련군과 배성, 근거지건설노래, 농촌소베트, 동북건설가, 세화진혁명가, 호조가, 봄맞이, 농촌사시, 생산가(860곡), 생산가(862곡), 호메가, 신농부가, 꿰지나칭나네, 열두칭칭가, 열씨종구려, 새심진가 등이 있다.

들은 그 주제가 매우 명료하고 직선적이며 목적이 분명하다. 시적 비유나 은유보다는 직설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타도해야 하는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노래들이 불러졌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목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항일투쟁노래의 특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산도에 왜적들을 쳐서 파하고  
청천강수 수군백만 도살하옵신  
충무공과 을지공의 용진법대로  
우리들도 그와같이 원수 쳐보세  
나가세 전쟁장으로  
검수도산 무릅쓰고 나갈 때에  
혁명군이 용감하게 더욱 분발해  
이천만번 죽더라도 나아감시다.

- 조선독립군가, 『항일투쟁시기노래집』, 115쪽.

- 一 오막사리 냉돌방에 주린 창자를  
부득키고 절절때면서 목이 붓도록  
부르짖는 말 아아 빵이 없거나  
二 고대광실 편이 앉아 금의 옥실을  
진탕치듯 먹고 마시며 기름지운 살  
그의 모토다 아아 우리 피로다  
三 불평등한 이 사회를 때려 부시고  
자유 평등 공산 사회를 건설하고서  
잘 살아 봅시다 아아 무산대중아

- 빈농민자탄가, 『항일투쟁시기노래집』, 56쪽.

〈조선독립군가〉 2절과 〈빈농민자탄가〉 전곡이다. ‘조국의 독립’과 ‘계급 해방’의 의지를 극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두 노래에는 이 노래

의 항유자들에게 독립과 혁명의 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목적뿐 아니라 동시에 교육과 계몽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다.

〈조선독립군가〉에서는 반일전쟁에 참가할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순신과 을지문덕이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왜군과 수군을 크게 물리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자는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한국의 역사적 영웅을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고 있으며, 이러한 영웅들의 후손인 ‘우리’들은 전쟁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함을 자각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노래들에는 일제에 대한 끝없는 적개심과 분노가 나타나 있으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높은 민족적 각성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할 것이라는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다.<sup>20)</sup>

〈빈농민자탄가〉에서는 소작인 혹은 무산대중의 빈곤의 원인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점을 교육함으로써 무산대중의 계급적 자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급투쟁과 관련된 노래에는 계급, 계층, 성별, 신앙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 인민의 의지와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인 사상이 드러나 있다. 또한 혁명의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위해 전 인민이 쫓겨갈 것을 호소하고 있다.<sup>21)</sup>

이 두 노래는 교육과 계몽이라는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조선독립군가〉와 같이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노래가 민족의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면 〈빈농민자탄가〉와 같이 계급혁명의 투쟁을 나타내는 노래의 경우에는 계급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20) 조성일·권철 외, 『중국 조선족 문학통사』, 이화문화사, 1997, 183~184쪽.

21) 위의 책, 185~187쪽.

서 차이가 있다. 물론 앞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국독립과 계급 혁명의 주체가 혼재되어 있는 노래도 존재한다. 나라 잃은 존재로서, 땅에서 소외된 무산계급으로서 이종고를 겪고 있던 당시 민중에 있던 조선 대중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조국독립과 계급혁명은 이루어 내야 하는 당면과제라는 점에서는 이 둘을 가려낼 필요는 없었다. 사회주의자들의 참여한 의식대립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노래를 향유하던 대중의 입장에서 그 둘을 가려 낼 이유는 적었을 것이다. 곧 조국 독립과 계급혁명의 두 주체의 공존은 당시 민주에서 불리던 항일투쟁노래의 내용적 특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노래에도 이러한 교육과 계몽, 독립과 혁명에 대한 사명감의 고취 등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五. 나는 나는 나는 윤틀터이다 교육가가 윤틀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교육가가 윤틀터이다

六. 소수민족문맹자들 모다 모다 퇴치하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교육가가 윤틀터이다

.....

十九. 나는 나는 윤틀터이다 빼오네르가 윤틀터이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빼오네르가 윤틀터이다

二十. 자본사회 타도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

      옳다 옳다 네가 네가 빼오네르가 윤틀터이다

— 어린이 목격가, 『항일투쟁시기노래집』, 187~190쪽.

〈어린이 목격가〉라는 제목 아래 불린 이 노래는 총 21절로 된 노래 중 5, 6절과 19, 20절이다. 어린이가 장래 희망을 노래하면서 각각 어떠한 인물이 되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다. 희망하는 직업으로 교육가, 의학자, 음악가, 문학가, 군학가, 공학가, 여자대표, 빼오네르가 나열되어 있는데, 소수민족문맹자를 몰아내는 교육가, 먹지 못

하고 입지 못해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의학자, 민중의 굶주리고 헐벗은 형상을 그려내는 문학가, 지주 자본가를 무장하고 몰아내는 군학가, 새 기계를 만들어서 새 사회 생산을 높이는 공학가, 여자 해방을 위한 여자 대표,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는 빼오네르 등이 되기를 독려하고 있다.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직업상을 노래함으로써 어린이의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는 동시에 어린이의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어린이들이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만 불렀던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은 연길과 훈춘의 항일 근거지의 학교와 아학을 중심으로 〈용진가〉, 〈메이데이가〉, 〈총동원가〉, 〈9·18사변가〉, 〈연길 감옥가〉, 〈나가짜우자〉, 〈결사전가〉 등의 선동력이 강한 항일투쟁 노래를 배우고<sup>22)</sup> 이를 통해 조국 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게 되고 계급 혁명의 이유를 학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항일투쟁노래는 목격성이 뚜렷한 노래이다. 그런데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에는 이러한 목격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바로 내 고향, 내 조국, 내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노래는 목적과 행동의 중심점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다른 항일혁명노래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내 고향을 리별하고 타관에 와서  
 적적인 밤 홀로 앉아서 생각을 하니  
 담담한 마음 아하! 누가 위로해

22) 김남호, 「총국조선족민간음악연구」, 길림: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95, 194~198쪽.



우리 짐서 떨지 않게 조금 나가면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어린 동생과  
놀든 그 모양 아하! 눈에 보인다

- 고향 리별곡, 『항일투쟁시기노래집』, 70쪽.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고향, 사랑하는 어린 동생과 즐겁게 살던 고향이 너무 그림고 가고 싶다는 내용이다. 어린 동생과 같이 놀던 시냇물 졸졸 흐르는 땅으로 대표되는 고향은 평화롭고 행복한 이상향이다. 노래의 화자가 현재 살고 있는 땅과 대조되는 그런 곳이다. 노래의 화자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재 그곳에 갈 수 없다. 이상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화자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화자가 타관에 머물면서 극복해야 할 망국의 현실과 빈곤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향을 그리는 노래에서는 조국을 잃은 현실과 가난을 극복해야 함을 비유적으로 암시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이 창작하여 독립운동 당시 불렀다고 알려진 〈사향가〉는 현재에도 애창되고 있는 노래로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마음이 절절히 표현되고 있는 노래이다. 가사의 1절은 다음과 같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 귀에 쟁쟁해

민경찬<sup>23)</sup>은 이 노래를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이국땅에서 독립운

23) 민경찬(1997, 2001)은 이 노래는 1920년대 田中樾積이 작곡한 일본 대중

동을 하다가 향수에 몸부림치며 불렀다'고 하면서 항일혁명가요의 하나라고 설명하였다. 이 노래와 같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망명애의 슬픔을 다루고 있는 노래나 가족을 그리워하고 향수를 달래는 노래가 항일투쟁노래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조국 회복'이라는 독립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선족민요곡집』에 '혁명역사가요'라는 이름 아래 실린 노래 중 공산당 집권 이후에 불린 노래에서는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노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동북건설가〉, 〈생산가〉, 〈섬멸의노래〉, 〈붉은피를 흘렸네〉, 〈승리의기발〉, 〈근거지 건설 노래〉, 〈길동군가〉, 〈길동혁명가〉, 〈일어나라동북의남아야〉, 〈우리패장동무〉 등 노래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공산당 혁명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에 대한 노래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조국의 독립과 관련된 노래가 사라진 것은 해방 후 독립을 외칠 이유가 없어진 것이 그 첫째 이유가 될 것이지만 조선 민족의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독립의 노래는 더 이상 불리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3. 〈신흥무관학교 교가〉의 의미와 특징

박씨 할머니는 신흥무관학교 교가<sup>24)</sup>를 큰 오빠에게서 배웠다고 하였는데, 큰 오빠는 독립운동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sup>25)</sup> 박

가요의 선율에 맞춰 부른 노래로 정사인 작사 작곡으로 알려진 〈내고향을 이별하고〉라고 하였다.

24) 박씨 할머니는 이 노래가 신흥무관학교 교가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다만 오빠에게서 배운 노래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25) "오빠는 원래 말하자면 독립운동, 그러니까 조선을 위하고, 여기 말고 뭐 레드라 독립군이요, 큰 오라버니가 항상 이런 사상을 머리에 두고 있지

씨 할머니는 2006년 현재 78세로 1929년 중국 길림성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상북도 예천 사람으로 조선에서 생활이 곤란하여 어머니와 오빠 3명을 데리고 길림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고 하였다. 길림으로 이주해서도 부모님은 오빠 둘을 더 두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낳았다고 한다. 할머니의 아버지는 한지를 잘 하셨지만 경제적 인 생활 능력은 떨어졌고 때문에 오빠가 살림살이를 맡아 하였다고 하였다.

박씨 할머니가 불러 준 신홍무관학교 교가의 원가사<sup>26)</sup>는 다음과 같다.

서복으로 흑룡태원 남의 영절의  
여러 만만 현원 자손 업어 기르고  
동해섬 중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젖먹여준 이가 뉘노  
우리 우리 배달 나라의  
우리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꿰뚫 피가 우리 뺨줄에  
찰찰찰 물결치며 돈다

장백산 밑 비단 같은 만리 낙원은  
반만년래 피로 지킨 옛집이어늘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놀 때도 그런 노래를 가르쳐주고”(박씨 할머니의 구술 중에서).

26) 서중석, 『신홍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121~123쪽. 서중석은 이상룡 선생의 손부 허은과 신홍무관학교 교관이었던 원병상의 기록을 바탕으로 신홍무관학교의 교가를 정리하였다. 허은과 원병상의 기록에는 큰 차이는 없지만 1절에서 허은은 ‘흑룡태원’이라 하고 원병상은 ‘흑룡대원’이라고 하였으며, 후렴구에서 허은은 ‘찰찰찰 물결치며’라고 하였고, 원병상은 ‘찰찰찰 결치며’라고 하였다. 2절에서 허은은 ‘백두산’이라고 하였고, 원병상은 ‘장백산’이라고 하였다.

남의 지식 놀이터로 내어 맡기고  
종서를 받느니 뉘노  
우리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우리 자손들이라  
가슴치고 눈물뿌려 통곡하여라  
지옥의 쇠문이 온다

갈춤 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론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씩어지는 우리 민족 이끌어 내어  
새나라 세울 이 뉘노  
우리 우리 배달나라의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  
두 팔 들고 고향쳐서 노래하여라  
자유의 깃발이 뻗다

신홍무관학교는 이동녕, 이회영 등이 만주 유하연 삼원포 추가가에 세운 신홍 강습소에서 비롯된 학교이다. 1912년 7월, 신홍 강습소는 통화현 합니하의 넓은 땅에 군사교육과 중등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상당한 시설을 갖춘 신홍무관학교, 신홍중학교로 승격하였다. 이후 1919년 신홍무관학교는 유하현 고산자 지역으로 이전 확장하지만 1920년 가을 폐교되었다. 신홍무관학교는 폐교되는 그 때까지 수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였고, 졸업생들 대부분은 조국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sup>27)</sup>

신홍학교 생도들은 그 시절 앞산 뒷산이 마주 올리도록 우렁차게 교가를 부르며 조국광복의 맹세를 거듭했다<sup>28)</sup>고 한다. 뿐만 아니라

27) 서중석, 앞의 책, 105~131쪽.

28) 원병상, 『신홍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집에 돌아가 누이나 가족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큰오빠를 통해서 이 노래를 배운 박씨 할머니뿐 아니라 이상룡 선생 손부 허은<sup>29)</sup>도 이 노래를 큰오빠한테서 배웠다고 하였다.

1절에서 '서북으로 흑룡태원 남의 영절의 여러 만만 현원 자손은 중국 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흑룡태원'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원 씨는 중국 시조인 황제의 이름임으로 '현원자손'은 중국민족을 일컫는 것이다. '동해섬 중 어린 것들은 일본을 비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절에서는 우리 배달나라의 조상들은 중국의 민족을 엮어 기르고 일본인을 기른 그런 민족인데, 바로 우리가 이 피를 물려받은 그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배달나라의 자손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땅을 제대로 지키고 가꾸지 못하였다. 2절에서는 강산을 빼앗기고 남의 종노릇 하고 있는 배달민족의 자손들은 통곡하고 그 잘못을 크게 누우쳐야 한다고 하였다. 박씨 할머니는 후렴구인 '우리 우리 청년들이라'를 부르면서 실제로 울음이 터지시는 듯 울컥 하시면서 이 부분을 부르고 있다. 3절은 신흥무관학교의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군사훈련을 통하여 육체를 단련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높은 인격을 길러 자유의 새 나라를 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식의 습득이나 인격 수양보다 육체적 군사훈련을 앞세웠는데, 신흥무관학교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각각의 절에서 불린 후렴구에서는 조상 → 자손 → 청년으로 변화하면서 청년의 힘으로 수치스러운 자손의 잘못을 회부하여 자랑스러운 과거 조상들의 시대와 맞먹는 자유의 새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남호는 '1913년 통화현 하니하신흥학교 교가를 보면 학생들을

1976, 9~83쪽.

29) 허은 구술, 변창애 기록, 『아직도 내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독립투사 이상룡선생의 손부 허은여사 회고록』, 정우사, 1995, 76~80쪽.

항일구국애로 불러일으키는 선동적 노래로 엮어졌다'라고 하고 이 노래를 1919년 통화현 반라배우문관에서 발행한 『소년창가』에 실린 〈애국가〉, 〈소년남자가〉, 〈작대가〉, 〈마항가〉 등처럼 일본 창가나 서양 찬송가의 음악 선율에 붙여 부른 애국계몽가요라고 하였다.<sup>30)</sup>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항일투쟁시기노래집』, 『조선족민요곡집』과 같이 중국에서 출판된 자료집에 실려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불린 노래이고, 다른 항일투쟁노래와 마찬가지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 투쟁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조국과 조상에 대한 긍지를 일깨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항일투쟁시기노래집』, 『조선족민요곡집』에 실린 노래 중 교육과 계몽, 독립과 혁명에 대한 사명감의 고취 등의 성격을 지닌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항일투쟁노래'와 같은 종류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 4.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통해 본 항일투쟁노래의 현재적 의미

일제 강점기 때 항일투쟁노래는 투쟁과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계몽, 교육, 단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조사된 이 노래는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상황이 달라진 지금 우리에게 이 노래들은 더 이상 투쟁과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계몽, 교육, 단결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조선족들은 일제 시대 만주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한국인 연구자에게 많은 노래 가운데에서 굳이 민족의 독립과 관련된

30) 김남호, 앞의 글, 194~195쪽.

항일투쟁노래를 들려주었으며 들려주고 싶어 하였는가?

한국 민족의 이민의 역사는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기근 등의 경제적인 이유와 압박과 식민지 통치의 정치적 이유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이주하였다. 중국으로의 이민은 1910년 이후 부쩍 증가하였으며 이들 이민자들의 다수는 기근과 일본의 압제에 시달린 농민층이었다.<sup>31)</sup> 중국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 강점기 동안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만주로 이주하여 해방 후에도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중국에 정착한 자들이거나 그들의 자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의 이민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지만 중국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자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주한 자들이거나 그들의 자녀들이나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2세, 3세대들은 이중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의 한인 2세, 3세대에게는 미국인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병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선족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국민이라는 국민정체성과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이 병존하는 이중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sup>32)</sup> 물론 이 두 가지는 항상 균형있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균형이 깨지기도 한다. 다음의 김재을 할아버지의 인터뷰<sup>33)</sup>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인지해낼 수 있다.

면답자: 언제 만주에 오셨습니까?

구술자: 오기는 말이여 우리 조부 때 왔어요. 내가 28년생이여, 그니

까 25년 때 왔어, 증조부 조부 때 왔지. 내가 탄생한 것은 28년인데 중국에서 낳았지.

면답자: 선조분들의 고향은 어디세요?

구술자: 여기 연변이야 연변, 훈춘.

면답자: 아니 한국에서요.

구술자: 아…… 한국에서는 함경남도 단천이야.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우리는 단천이라 하지. 본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동이라고 하지. 중국사회에서 조선족의 전통적인 문화습관을 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고향이 어디냐! 하면 난 단천이다. 그런 답에 본을 꼭 물어 봐야 해. 그러면 우리는 안동 김씨 아니야. 그래서 난 안동이대라고 말하지.

고향이 어디냐는 질문에 김재을 할아버지는 처음엔 연변 훈춘이라고 대답하시다가 한국에서의 고향을 물으니 곧 한국의 함경남도 단천이라고 고향을 정정해 주었다. 그리고 이어서 조선족들은 고향을 묻는 다음에 본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하며 할아버지가 조선 문화에 익숙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는 할아버지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조선인이라는 당시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조선족들은 중국이라는 다민족 사회에서 민족 언어 및 민족 문화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높은 교육열을 통해 비교적 많은 수의 조선족들이 주류사회의 구조에 참여하거나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여 소수민족으로서는 높은 경제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치적 순응과는 달리 문화적으로는 조선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곧, 중국 이민자들은 중국의 기회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기도 하지만 조선족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 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2003, 101-142쪽.

32) 위의 글, 134쪽.

33) 2006년 10월 21일 인터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한인으로서의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할 때 그 매개가 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 민족의 전통문화와 언어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전통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국민으로서가 아닌 민족으로서의 동일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한국의 민족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한글 사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일제 식민 시기의 만주에 살고 있던 조선족의 일상생활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의 생활을 묻는 질문자에게 제보자들은, ‘당시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중국의 한족의 생활과 전통 문화와 구분하여 설명하면서 한인으로서의 자신의 민족정체성을 나타내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보자들 대부분이 항일투쟁시기 당시의 만주의 의, 식, 주, 세시풍속, 관혼상제, 교육 등에 대한 일상과 전통에 초점을 맞춘 인터뷰에 항일 독립 운동에 대한 일화나 노래를 섞어 구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70-8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제보자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항일에 대한 이야기나 노래를 들려주었으며, 〈신흥무관학교 교가〉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문제는 민족, 조국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기제라고 볼 수 있다. 민족정체성에 대한 자각 없이 독립의식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곧,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한 국민의 독립 의식은 바로 스스로가 한국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 노래나 이야기들은 이러한 자각을 자극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저항할 필요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의 ‘독립’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저항과 독립의지의 표현으로서의 기능을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재 ‘독립’의 화제

는 개인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보자들이 구연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에 대한 일화나 노래는 민족의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한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 할머니가 연행한 조선독립의 의지를 다짐하는 〈신흥무관학교 교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할머니의 〈신흥무관학교 교가〉의 연행의 의미를 과거 항일투쟁기 때처럼 독립의 의지를 고취시킨다는가, 독립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곧, 박씨 할머니는 이 노래를 한인으로서의 할머니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독립운동에 대한 항일투쟁노래가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그 매개체로써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는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정체성의 표출과 관련된 특징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5. 항일투쟁노래의 연구 의의와 방향

본 글에서는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항일투쟁시기 노래집』 및 『조선족민요곡집』에 실려 있는 항일투쟁노래를 중심으로 재만조선인 항일투쟁노래의 과거와 현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항일투쟁노래는 19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일제 식민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불린 노래이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비판하고 조국의 독립과 계급의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노래로 교육, 계몽, 목격성이 강한 노래이다. 때문에 당시 이 노래를 부르고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국 독립에의 사명감과 계급 투쟁의

의지를 고취시키는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민조선인의 항일투쟁노래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는 민족정체성의 측면에서 독립의 의미와 연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민조선인의 항일투쟁노래가 특히 〈신흥무관학교 교가〉와 같이 독립과 관련된 항일 투쟁 노래는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정체성의 문체와 관련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개체로써 역할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립’은 민족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의식이기 때문에 독립을 주제로 하고 있는 항일투쟁노래는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노래의 향유양상을 살펴볼 때 이러한 결론은 의미가 있다. 조선 독립, 계급투쟁, 고향에 대한 향수는 항일투쟁노래의 주요 주제였다. 그런데 해방 후 조선독립의 의지나 고향을 그리는 노래는 점점 사라지고 혁명과 관련한 노래만 계속 명맥을 유지하였다. 『조선족민요곡집』에 ‘혁명역사가요’라는 이름 아래 실려 있는 노래 중에서 해방 후 공산당이 집권한 이후의 노래를 살펴보면 혁명과 관련된 주제만 이어져 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사회에 정치적으로 적극 동화되어 적응해 온 조선족들은 더 이상 조선의 민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노래를 부를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다민족 사회에서 민족문화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민요가 전해지고 조선전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정치적 순응을 통해서 주류사회의 구조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정치적 측면에서 조선의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투쟁적 성격의 항일투쟁노래는 조선족들의 향유대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박씨 할머니가 부른 신흥무관학교 교가는 같은 남한의

동족을 보고 오랜 후식이 끝에 다시 부른 노래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때 할머니의 신흥무관학교의 연행의 의미를 과거 항일투쟁기 때와 같이 독립의 의지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곧,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같은 민족임을 표현하기 위해, 다시 말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신흥무관학교 교가〉를 활용한 셈이다. 물론 항일투쟁노래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자료의 수집이 요구되며 여러 측면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